

저자 (Authors)	신숙 Shin, Suk
출처 (Source)	한국고대사탐구 25 , 2017.4, 310-341 (32 pages) Sogang Journal of Early Korean History 25 , 2017.4, 310-341 (32 pages)
발행처 (Publisher)	한국고대사탐구학회 Society for the Study of Early Korean History
URL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7164473
APA Style	신숙 (2017). 신라 興德王 敎書에 보이는 공예 장식과 국제교역. 한국고대사탐구, 25, 310-341.
이용정보 (Accessed)	삼성현역사문화관 210.178.101.*** 2020/03/30 15:17 (KST)

저작권 안내

DBpia에서 제공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누리미디어는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은 DBpia와 구독 계약을 체결한 기관소속 이용자 혹은 해당 저작물의 개별 구매자가 비영리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위반하여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을 복제, 전송 등의 방법으로 무단 이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 Information

Copyright of all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elongs to the copyright holder(s) and Nurimedia does not guarantee contents of the literary work or assume responsibility for the same. In addition,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may only be used by the users affiliated to the institutions which executed a subscription agreement with DBpia or the individual purchasers of the literary work(s) for non-commercial purposes. Therefore, any person who illegally uses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y means of reproduction or transmission shall assume civil and criminal responsibility according to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신라 興德王 敎書에 보이는 공예 장식과 국제교역

신 숙*

- I. 興德王 敎書의 내용과 의미
- II. 신분에 따른 공예 장식의 구분
- III. 外來品 선호와 장식기법의 발전
- IV. 敎書를 통해 본 신라 공예 문화의 다양성

【국문초록】

신라 興德王(재위 826-836) 9년(834)에 반포된 敎書는 신분과 지위에 따른 禁制 규정으로 당시 사회의 일면을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기록이다. 『三國史記』에는 골품에 따라 色服, 車騎, 器用, 屋舍 등에 사용할 수 있는 품목이 기술되어, 신라 시대 선호된 공예 재료와 장식기법에 대한 단서를 엿볼 수 있다.

공예품의 재료를 살펴보면, 왕실의 상징물인 玉과 瑟瑟을 비롯해 玳瑁, 烏犀, 象牙, 孔雀尾, 翡翠毛 등 다양하게 나타난다. 사치품의 범람과 외래품의 선호를 규제하고자 하는 목적도 있었기 때문에 異國產 물품이 상당수를 차지한다. 白玉은 양질의 옥 산지로 유명했던 호탄의 산물로 추정되며, 터키석인 瑟瑟은 이란과 티베트에서 원석이 생산된 것을 알 수 있다. 대모, 서각, 상아 등 유기물 보석은 대체로 동남아시아에서 들어온 품목으로 확인되어, 활발했던 국제교역의 상황을 증명해 준다.

기록에 나타나는 瑟瑟鈿, 寶鈿, 刻鏤, 綴珠, 綴玉, 平文 등은 장식 기법의 특징을 가늠하게 한다. ‘鈿’은 기물의 표면에 보석을 감입하는 장식이며, 平文과 平脫, 螺鈿 기법의 유행과도 연결된다. 한편 ‘鏤’는 기존에 알려진 撥鏤와 비교하여 검토하였다. 상아의 표면에 새김장식을 하는 ‘牙鏤’를 撥鏤의 원류로 해석하였으며, 正倉院에 전하는 상아제 유물을 韓日 교류의 결과물로 추정하였다. 綴玉과 綴珠는

*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초빙교수

옥이나 진주와 같은 보석을 꿰거나 엮어 화려함을 배가하는 공예 기법으로 파악하였다.

금제규정은 신분에 맞지 않는 사치품의 사용이나 호화로운 물품의 유행을 반증해 준다. 강력한 규제가 필요할 만큼 상류 문화에 대한 열망과 소비가 확대된 것이다. 신분제로 유지되는 사회에서 규범을 벗어난 풍속이 긍정적인 현상은 아니겠지만 신라 문화의 수준과 다양성에 변화를 가져왔다. 각종 외래품은 신라의 적극적인 대외교류를 확인해 주며, 고가의 재료를 더욱 빛나게 했던 우수한 장식 기술은 공예 분야의 융성과 번영에 밑거름이 되었다.

주제어 : 신라(Silla), 흥덕왕(King Heungdeok), 三國史記(Samguk Sagi), 옥(jade), 瑟瑟(seulseul), 상아(ivory), 撥鏤(ballu, bachiru)

I. 興德王 敎書의 내용과 의미

신라 제42대 興德王(재위 826-836) 9년(834)에 반포된 敎書는 신분과 지위에 따른 禁制 규정으로 당시 사회의 일면을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문헌 기록이다.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내용은 『三國史記』 卷 第33 雜誌 第2에 전하고 色服, 車騎, 器用, 屋舍 즉 복식과 탈것, 사용하는 기물, 거주 공간 등으로 나누어 신분에 따른 품목의 제한을 두었다. 최상위인 王族을 제외하고 眞骨, 六頭品, 五頭品, 四頭品, 平人을 남녀로 구별하여 해당하는 내역을 서술하였다.

흥덕왕은 조카였던 哀莊王(재위 800-809)을 살해하고 집권한 憲德王(재위 809-826)의 동생으로 왕위를 계승하였다.¹⁾ 헌덕왕 14년(822)에 왕위 계승의 불만이 표출된 김헌창의 난이 발생한 이후, 점차 신라는 무력에 의한 왕권 찬탈이 본격화된 시기로 접어들게 된다. 따라서 흥덕왕은 국가

1) 조범환, 「新羅 下代 憲德王의 副君 설치와 그 정치적 의미」 『진단학보』 110, 2010, 31~54쪽.

분열의 위기와 사회 혼란을 극복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펼쳐 나가야만 했다. 기존의 9주 중심으로 이루어진 지방의 군사체계를 통제하기 위해 淸海鎮과 唐城鎮을 설치하였으며, 오래도록 백성의 추앙을 받고 있던 김유신을 흥무대왕으로 추봉하여 통합과 안정을 추구하였다.²⁾ 또한 연이은 가뭄과 지진, 역병 등으로 사회가 불안해지자, 834년 백성을 慰撫하기 위해 지방을 巡幸하기도 한다.³⁾ 민심을 수습하고 체제 안정을 구축하기 위한 일련의 정책 과정에서 골품에 따른 규범도 정비한 것으로 추정된다.

敎書의 서두에서도 관련된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 “사람은 上下가 있고, 地位는 尊卑가 있어, 名稱과 法式이 같지 않고 衣服도 다르다. 그런데 풍속이 점점 각박하고 백성들이 다투어 사치와 호화를 일삼고 다만 外來品の 珍奇한 것만을 숭상하고, 도리어 土產品을 싫어하니, 예절이 참람하고 풍속이 파괴되는 데까지 이르렀다. 이에 옛 법에 따라 嚴命을 베푸는 것이니, 그래도 만일 일부러 범하는 자가 있으면 國法을 시행할 것이다”라고 언급하였다.⁴⁾

엄중한 신분제로 유지되는 사회에서 규범을 벗어난 풍속의 문란은 국가의 기강을 흔드는 중요한 사안이었을 것이다. 신라의 후반기는 왕위쟁탈로 인한 귀족의 政爭과 六頭品의 정치 진출 확대로 骨品의 계층구별이

2) 조범환, 「金庾信의 가계와 후손들의 활동」 『신라사학보』 11, 2007, 35~71쪽 ; 김창겸, 「신라시대 金庾信의 興武大王 追封과 ‘新金氏’」 『신라사학보』 18, 2010, 33~68쪽 ; 윤경진, 「신라 興德王代체제 정비와 金庾信 追封」 『史林』 52, 2015, 105~142쪽.

3) 채미하, 「신라 흥덕왕대의 정치와 儀禮」 『신라문화』 42, 2013, 291~314쪽.

4) 『三國史記』 卷33, 雜誌2 色服, “興德王即位九年, 太和八年, 下敎曰, 人有上下, 位有尊卑, 名例不同, 衣服亦異, 俗漸澆薄, 民競奢華, 只尙異物之珍寄, 却嫌土產之鄙野, 禮數失於逼僭, 風俗至於陵夷, 敢率舊章, 以申明命, 苟或故犯, 國有常刑” 興德王代 규정은 『三國史記』 原文과 함께 崔虎譯, 『新譯 三國史記』 2, 흥신문화사, 1999와 정구복, 노중국, 신동하, 김태식, 『역주 삼국사기』, 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 2011를 참고.

언제보다도 엄격히 요구되는 시기였다. 그럼에도 강력한 금제규정이 필요했을 만큼 사치품이 광범위하게 소비되고 있었다. 上下尊卑에 걸맞게 지켜지고 있었다면 굳이 규정을 되새길 필요가 없었을 지도 모른다. 사치품의 범람과 외래품의 선호를 정치, 사회적 입장에서 긍정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 없겠지만, 통일신라 공예문화의 수준과 유행, 다양성 등을 살펴볼 수 있는 점에서 나름의 의의가 있다.

敎書는 전체 내용의 상당 부분이 복식에 해당되어, 일찍부터 복식사에서 중요하게 다루었고 다수의 연구 성과도 축적되어 있다.⁵⁾ 근래 역사학과 미술사에서도 신라 복식의 변천을 살피면서, 흥덕왕 복식 금령의 특징을 조명한 바 있다.⁶⁾ 반면, ‘사치와 호화를 일삼고 다만 外來品の 珍奇한 것만을 숭상하고’라는 부분에서 보듯이 異國의 물품이 강조되고 있음에도, 국제 교역을 통해 유입된 재료의 활용과 장식기법에 대한 고찰은 많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기록에 나타나는 공예 관련 용어를 검토하고 당시 선호된 장식 재료와 기법을 고찰하여, 신라 공예문화의 특징을 조명해 보고자 한다.

-
- 5) 김진구, 「三國史記의 服飾用語 研究I」 『服飾文化研究』 5-1, 1997 1~10쪽 ; 「三國史記의 服飾研究II - 色服의 衣服을 中心으로」 『服飾文化研究』 6-2, 1998, 153~173쪽 ; 「三國史記의 服飾研究III」 『服飾文化研究』 6-2, 1998, 174~187쪽 ; 「三國史記의 服飾研究IV - 色服의 婦人 服色을 中心으로」 『服飾文化研究』 6-2, 1998, 188~196쪽 ; 「三國史記의 服飾研究V - 樂工服을 中心으로」 『服飾文化研究』 7-2, 1999, 205~210쪽 ; 「三國史記의 服範研究 VI - 色服의 服範 附屬品을 中心으로」 『服飾文化研究』 7-3, 1999, 341~356쪽 ; 전혜숙, 「신라통일기 정치적 상황과 복식연구-흥덕왕 복식금제에 나타난 복식실태를 중심으로」 『복식문화연구』 6-2, 1998, 333~354쪽 ; 권영숙, 신경철, 장현주, 「한국 고대 羅織물의 유형과 특성-흥덕왕 복식금제에 나타난 羅織물을 중심으로」 『복식』 51-1, 2001, 21~32쪽 ; 전현실, 강순제, 「흥덕왕 복식제도 원전 고찰 및 분석」 『복식』 63-5, 2013, 132~150쪽.
- 6) 박남수, 「신라의 衣生活과 織物 생산」 『한국고대사연구』 64, 2011, 439-481쪽 ; 이한상, 「신라 복식의 변천과 그 배경」 『신라문화』 43, 2014, 137~171쪽.

II. 신분에 따른 공예 장식의 구분

1. 왕실 권위의 상징, 보석

敎書에는 진골 계층이 사용할 수 없는 품목, 즉 오직 왕실을 위한 독점적인 상징물을 살펴볼 수 있다. 최상의 권위와 신분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재화 가치가 높고 아름다운 빛과 색을 지니면서 희소성까지 갖춘다면 이상적이다. 그러한 조건에 부합하는 대표적 공예 재료가 보석이다. 眞骨의 항목에는 ‘玉’이 설명되었는데, 모두 금제규정으로 특별한 위상을 지닌 보석임을 알 수 있다. 色服에는 腰帶에 研文白玉을 금하고 靴帶는 隱文白玉을 쓸 수 없다고 하였으며, 車騎에서 수레와 말안장, 재갈, 등자 등을 꾸미는 데에도 허용되지 않았다.⁷⁾

옥은 일찍부터 天子의 상징물로 인식되었고 중국을 비롯한 동양에서는 오랜 기간 최고 보석의 지위를 누려왔다. 『禮記』에는 지위 高下에 따라 사용하는 옥의 종류를 구별하였다. 즉 天子는 白玉, 公侯는 玄玉, 大夫는 蒼玉, 世子는 瑜玉을 쓴다고 전한다.⁸⁾ 玉은 현대 광물학적으로는 角閃石인 軟玉과 輝石인 硬玉(또는 翡翠)으로 구분하는데, 고대에는 색상에 따라 다르게 파악하였다. 또한 엄밀한 의미로 玉은 특정 광물만을 지칭하지만 때로 보석으로 인식한 진귀한 돌을 두루 뜻하는 경우도 있다. 검은색을 띠는 玄玉이나 黑玉은 옥으로 부르지만 실제로는 유기물 보석이다.⁹⁾ 따라

7) 『三國史記』 卷33, 雜誌2, 色服, “眞骨大等 … 腰帶禁研文白玉, 靴禁紫皮, 靴帶禁隱文白玉” ; 車騎, “眞骨, 車材不用紫檀沉香, 不得帖玳瑁, 亦不敢飾以金銀玉… 銜鐙禁金鍮石鍍金綴玉 … 眞骨女 … 銜鐙禁裏金綴玉”

8) 『禮記』 玉藻, “天子佩白玉而玄組綬, 公侯佩山玄玉而朱組綬, 大夫佩水蒼玉而純組綬, 世子佩瑜玉而綦組綬, 士佩瑀玟而緼組綬.”

9) 『本草綱目』에는 琥珀의 다음 항목에 玄玉을 설명하면서, 호박이 1000년의 시간을 지나면 玄玉이 된다고 믿었고 高昌國에서 산출된다고 기록하였다. 李時珍, 『本草綱目』 木之四, “恭曰, 古來相傳松脂千年爲茯苓, 又千年爲琥珀, 又千

서 광물 보석인 옥은 비취색과 백색으로 한정될 수 있다.

왕의 腰帶에만 장식할 수 있었던 옥은 研文白玉과 隱文白玉으로 언급되었다. 갈고 닦는 과정을 통해 형태를 만들고 열은 선각으로 무늬를 새긴 것으로 추정된다. 研文은 양각문, 隱文은 음각문을 뜻한 것으로 보인다.¹⁰⁾ 아쉽게도 관련 유물은 전하지 않지만 같은 시기 唐代 유물을 통해 원형을 추정해 볼 수 있다. 중국 陝西省 西安 何家村에서 출토된 <白玉獅子文帶>는 표면을 잘 마연하고 문양을 새겨 넣었다(도 1, 1-1). 백옥의 질감을 살리고 문양의 윤곽을 부드럽게 표현하면서 양각되어, 研文白玉으로 만든 腰帶를 연상하게 한다.



<도 1> 白玉獅子文帶, 중국 唐, 陝西省 西安 何家村 <도 1-1> 白玉獅子文帶 세부

玉帶의 특별한 의미는 신라 三寶로 꼽히는 天賜玉帶 이야기에서 분명하게 나타난다. 진평왕이 왕위에 오르던 해에 하늘에서 天使가 내려와 上皇의 命을 받들어 玉帶를 바쳤으며, 왕은 친히 무릎을 꿇고 받아 天地와

年爲, 二物燒之皆有松氣, 狀似玄玉而輕 … 高昌人名爲木, 謂玄玉爲石.” 그러나 흑옥은 호박처럼 송진이 굳어진 것이 아니라, 습한 환경에서 나무가 오랜 시간 고온과 압력에 노출되어 성질이 변화된 유기물 보석이다.

10) 김진구, 앞의 논문, 1999, 3쪽.

조상에게 제사할 때 옥대를 돌렸다는 내용이다.¹¹⁾ 진평왕의 지위는 하늘이 인정한 것이며, 존엄함을 증명하는 상징물로 옥대가 등장한 것이다. 天賜玉帶는 신라의 보물로 신성시되었고 나라를 지키는 聖物로 보관되었다. 또한 신문왕 2년(682)에 海龍이 黑玉帶를 바치는 기록도 확인된다.¹²⁾ 玉帶의 여러 쪽이 모두 眞龍이고 하나를 떼어 물에 넣자 용이 되었다고 하였는데, 과관에 용문이 장식된 것으로 추정된다. 진평왕의 天賜玉帶와 마찬가지로 설화적인 내용이지만 당시 옥이 차지하는 위상과 상징을 보여준다.

眞骨 女人의 色服에는 옥에 대한 규정이 나타나지 않는다. 그렇지만 『太平寰宇記』 601년의 기록에 일본의 복식을 언급한 구절에서 신라와 관련된 단서가 있다.¹³⁾ 즉 비단으로 冠飾을 삼고 치마 단에는 장식 선을 두르며, 金玉으로 꾸미는데 신라와 같다고 설명하였다. 간접적인 기록이지만 당시 여인의 복식에도 옥을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으며, 원래는 왕실 여인에게만 허용되었을 것이다.

옥이 예부터 하늘의 권위나 왕실의 위엄을 상징한 보석이였다면, 신라

11) 『三國遺事』 卷1, 紀異1, “第二十六白淨王, 諡眞平大王, 金氏, 大建十一年己亥八月即位. 身長十一尺, 駕幸內帝釋宮(亦名天柱寺, 王之所創), 踏石梯, 三石並折, 王謂左右曰, 不動此石, 以示後來. 卽城中五不動石之一也. 卽位元年, 有天使降於殿庭, 謂王曰, 上皇命我傳賜玉帶, 王親奉跪受. 然後其使上天. 凡郊廟大祀皆服之. 後高麗王將謀伐羅, 乃曰, 新羅有三寶不可犯, 何謂也. 皇龍寺丈六尊像一, 其寺九層塔二, 眞平王天賜玉帶三也, 乃止其謀. 讚曰, 雲外天頒玉帶圍, 辟雍龍袞雅相宜. 吾君自此身彌重, 准擬明朝鐵作墀.”

12) 『三國遺事』 卷2, 紀異2, 萬波息笛, “王御感恩寺宿, 明日午時, 竹合爲一, 天地震動, 風雨晦暗七日, 至其月十六日風霽波平. 王泛海入其山, 有龍奉黑玉帶來獻, 迎接共坐, … 太子理恭(卽孝昭大王)守闕, 聞此事, 走馬來賀, 徐察奏曰, 此玉帶諸窠皆眞龍也. 王曰, 汝何知之. 太子曰, 摘一窠沈水示之. 乃摘左邊第二窠沈溪, 卽成龍上天, 其地成淵, 因號龍淵.”

13) 樂史, 『太平寰宇記』 卷174, 四夷3 東夷3 倭國, “隋開皇二十年 … 明年, 帝遣文林郎裴清, 使於倭國 … 煬帝時, 始賜以衣冠, 令以綿綵爲冠飾, 裳皆施襪 綴以金玉衣服之制, 頗同新羅”

통일 이후 크게 유행하면서 최고의 가치를 지니게 된 경우도 있다. 진골 여인도 장식할 수 없었던 瑟瑟이다.¹⁴⁾ 冠이나 빗[梳]에 부착하여 장식하는 슬슬은 왕실에서만 누릴 수 있었던 고가의 보석이었다. 슬슬은 고대 문헌에서 자주 찾아볼 수 있지만 무엇을 뜻하는 용어인지에 대해서는 불분명하다. 따라서 일찍부터 많은 논의가 진행되었고 라피스라줄리, 사파이어, 터키석, 에메랄드 등 다양한 견해가 제시되었다. 대체로 푸른색 보석이라는 것과 타슈켄트나 페르시아 등 서역에서 산출된다는 점이 공통되며, 터키석일 가능성이 좀 더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¹⁵⁾

터키석은 綠松石으로도 부르며, 평양 석암리 9호분에서 출토된 금제 교구와 경주 황남대총 북분 출토 금제 팔찌, 그리고 삼성미술관 소장 나전 거울 등에서도 확인되는 장식 재료이다. 삼국시대에도 터키석을 확인할 수 있지만 문헌기록과 현존 유물의 상황을 볼 때, 통일신라 이후 본격적으로 유입되면서 많이 사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진골 여인에게 금한 ‘梳禁瑟瑟鈿玳瑁’를 떠올리게 하는 유물은 삼성미술관 소장품으로 전한다(도 2). 빗의 몸체는 대모로 만들고 푸른색 보석으로 장식하였다.

장식된 보석의 색상은 농담의 차이가 있고 푸른색이나 녹색도 보이지만 터키석으로 추정된다. 일반적으로 터키석의 색상을 청색으로 인식하고 있지만 철이나 크롬이 들어가면 녹색을 띠는 경우도 많다. 빗은 금과 유색 보석의 조화, 정교한 금세공과 매끈하게 처리된 보석 가공, 공간과 위치에 따라 적절하게 장식의 변화를 준 감각이 돋보인다. 이와 같이 호화로운 사치품에 장식되는 슬슬은 희소성과 아름다움을 갖추고 있어, 왕실 여인의 전유물로 자리매김하였다.

14) 『三國史記』 卷33, 雜誌2, 色服, “眞骨女 … 梳禁瑟瑟鈿玳瑁 … 冠禁瑟瑟鈿”

15) 신숙, 「한국 미술에 보이는 보석재료와 장식」 『금은보화』, 삼성미술관 리움, 2013, 138~139쪽.



<도 2>瑟瑟鈿玳瑁梳, 통일신라, 길이 10.3cm, 삼성미술관 리움

2. 다양한 재료의 활용과 유행

敎書의 色服에 언급된 여성의 머리 장식에는 冠, 梳, 釵 등이 있다. 冠은 6두품까지만 쓸 수 있었고 瑟瑟과 같은 화려한 장식은 진골도 누릴 수 없었다. 梳는 실용 목적으로 쓰는 것과 구별되는 장식용 빗이고 釵는 올린 머리를 고정할 때 사용하는 비녀인데, 보통 두 가닥으로 나뉘어져 있다. 비녀는 금으로 주로 만들지만 빗은 다양한 재료로 제작되었다. 따라서 ‘梳’를 통해 여러 종류의 異國產 재료가 어떻게 활용되었는지 고찰할 수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瑟瑟로 장식된 빗은 아무나 사용할 수 없었지만 玳瑁로 제작된 것은 허용되었다. 대모는 거북목 바다거북과에 속하는 동물의 背甲으로, 이른 시기부터 공예품의 재료로 사용되었다. 특별한 장식이 없는 玳瑁 빗은 五頭品 여인까지도 사용할 수 있었다!¹⁶⁾ 그런데 진골

은 ‘瑟瑟鈿玳瑁’를 쓸 수 없다고 하면서 5두품은 ‘素玳瑁’를 허가하는 한편, 6두품에 대한 언급은 없다. 5두품에 허용된 대모를 당연히 상위 계층에서도 사용했을 것이라는 추정이 합리적이기 때문에, 일부 기록이 누락되거나 誤記일 가능성이 있다.¹⁷⁾ 그렇다면 瑟瑟鈿과 같은 장식이 없는 대모제 빗을 진골과 6두품 여성이 사용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5두품의 ‘素玳瑁’와는 어떠한 구분이 있었는지 궁금하다.



<도 3> 黑漆玳瑁梳, 통일신라, 길이 12.5cm, 삼성미술관 리움

진골이나 6두품 여인이 착용한 대모제 빗에 관한 의문은 삼성미술관 소장품에서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도 3). 가야지역 출토품으로 전하는 빗은 화려한 보석장식은 없지만 표면을 흑칠한 모습이다. 옆면을 보면 제작 과정의 단면이 드러나는데, 얇게 편 대모를 여러 겹으로 붙여 적당한 두께로 만든 후 빗 모양으로 만든 것을 알 수 있다. 표면에 흑칠한 것처럼 각각의 판을 붙이는 데에도 접착력이 있는 옷칠을 이용했을 것이다. 대모에

16) 『三國史記』 卷33, 雜誌2, 色服, “五頭品女 … 梳用素玳瑁已下”

17) 김진구, 앞의 논문, 1999, 347~348쪽.

고가의 옷칠을 활용하여 아름다움과 내구성을 높인 것으로 생각되며, 5두품이 사용한 ‘素玳瑁’와 차등이 있는 장식으로 해석된다.

다음으로 四頭品 여인이 사용할 수 있는 빗은 ‘素牙角木’으로, 상아, 뿔, 나무 등에 장식을 하지 않은 것이다.¹⁸⁾ 5두품과 비교하면 대모가 상아보다 고가품인 것으로 추정된다. 상아는 코끼리 엄니로 대표되지만 포유동물의 어금니를 모두 뜻하기도 한다. 때로는 일각고래, 향유고래, 해마, 하마의 엄니도 상아처럼 공예 재료로 쓰인다.¹⁹⁾ 당시 平人 여성도 상아제 빗을 쓸 수 있던 것으로 보아, 상당히 유행했던 것을 알 수 있다.²⁰⁾

신라의 상아제 빗은 일본 正倉院에 전하는 『買新羅物解』에도 기록되어 있다. 752년 신라사절의 물품을 구입하기 위해, 관품 5위 이상의 일본 귀족들이 작성하여 담당관청에 제출한 신청서 중에는 ‘牙梳, 牙笄子’ 등의 언급이 확인된다.²¹⁾ 상아로 만든 빗과 비녀를 신라에서 수입한 것이며, 실물 자료가 正倉院 소장품으로 남아 있다(도 4).

18) 『三國史記』 卷33, 雜誌2, 色服, “四頭品女 … 梳用素牙角木, 釵禁刻鏤綴珠及純金”

19) 해마나 고래의 이빨인 魚牙는 金銀과 牛黃, 人參 등과 함께 신라의 특산물로 알려져 있다. 고래는 동해에서 얻을 수 있는 어종이며, 특히 향유고래는 이빨 고래 가운데 대형으로 상당한 크기의 이빨을 가지고 있다. 신라가 동해 바다에서 건져 올린 고래의 이빨을 코끼리 상아의 대체품으로 사용했을 수도 있다. 신라에서 唐에 魚牙를 보냈다는 기록도 다수 전하고 있어, 그러한 가능성을 엿볼 수 있다. 『唐會要』 卷95, 新羅, “開元 … 十二年 興光遣使獻果下馬二匹 牛黃 人參 頭髮 朝霞紬 魚牙 納紬 鏤鷹鈴 海豹皮 金銀等.” ; “天寶 … 七載 遣使獻金銀及六十總布 魚牙 納朝霞紬 牛黃 頭髮 人參.” ; “大歷 … 八年 遣使來朝 並獻金銀牛黃魚牙納朝霞紬等方物.”

20) 『三國史記』 卷33, 雜誌2, 色服, “平人女 … 梳用素牙角已下”

21) 『買新羅物解』, “合玖種 丁香(直七斤) 薰衣香(直七斤) … 五六寸鏡(直廿斤) 牙梳(直三斤) 牙笄子 <直二斤> 以前物等 價綿壹伯斤 天平勝寶四年六月十六日” (東野治之, 『鳥毛立女屏風下貼文書の研究-買新羅物解の基礎的考察』 『史林』 57-6, 1974 및 신숙, 『한국 고대 보석장식 공예품과 국제교류』, 홍익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6, <별첨 1> 『買新羅物解』 참고, 이후 관련 항목 동일)



<도 4> 牙梳, 일본 奈良 正倉院

中倉에 보관되었던 상아빗은 모두 3점이 전하며, 크기와 모양은 동일하다. 빗은 전체적으로 부드럽게 마무리가 잘 되어 있고 124개의 빗살을 일정한 간격으로 촘촘하게 만들었다. 奈良時代에는 회양목으로 만든 빗이 주류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正倉院에 소장된 상아제 빗은 문서에 기록된 바와 같이 신라에서 구입한 유물일 가능성이 있다. 재료와 제작기법이 훌륭한 점을 들어, 일본에서는 막연하게 중국에서 들여온 舶載品으로 추정하고 있지만 문헌에 언급된 상아제 빗의 사용과 유행, 거래 기록 등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買新羅物解』에는 상아제 笏을 구입한 내역도 확인된다.²²⁾ 홀은 관리의 신분에 따라 재질을 달리하는데, 중국에서 상급 관리는 윗부분을 둥글게 만든 상아홀을 쓰고 낮은 관리는 대나무로 만든 것을 사용하였다.²³⁾ 우리나라에서도 중국의 영향을 받아 신라시대에 상아홀을 들었으며, 六頭品の 지위인 緞漚까지 쓸 수 있었다.²⁴⁾ 근래 경주 월지 북쪽에서도 상아제

22) 『買新羅物解』, “□ … □申請應物事 … 牙笏沈□丁香 … 天平勝寶四年六月廿四日 事業從八位上日置酒持”

23) 『新唐書』 卷24, 群臣之服, “玄冕者 五品之服也 … 象笏 上圓下方 六品以竹木上挫下方.”

24) 『三國史記』 卷5, 新羅本紀5, 眞德王, “四年, 夏四月, 下敎, 以眞骨在位者執牙笏”; 『三國史記』 卷33, 雜誌2, “色服 法興王制, 自太大角干至大阿漚, 紫衣, 阿漚至

기물이 발견되어 관심을 끈다.²⁵⁾ 정육면체 주사위로 각 면에는 숫자만큼 원형 점을 새겨 넣은 모습이다. 의례용이나 장신구, 그리고 놀이문화에 이르기까지 상아를 폭넓게 활용한 것을 알려준다.

남성의 물품을 장식한 대표적인 재료는 犀角이다. 코뿔소의 뿔로 갈색이 많고 검은색은 烏犀角이라고 부른다.²⁶⁾ 기록에는 6두품 남자부터 腰帶와 靴帶에 烏犀를 허용한다고 적었다.²⁷⁾ 그런데 眞骨의 항목에 白玉을 금지했기 때문에 실제로는 진골도 오서각 요대와 화대를 사용했을 것이다. 혹은 고려의 사례를 비교해볼 때, 서각과 오서각이 구별되었을 수도 있다. 고려시대에는 犀帶를 좀 더 높은 품계에서 사용할 수 있었다.²⁸⁾ 犀角은 남성의 장식 재료로는 白玉 다음에 위치하는 중요한 품목이었다. 남성의 腰帶와 靴帶는 같은 재료로 명시하기 때문에 세트화 된 의복 장식인 것으

級漚, 緋衣並牙笏”

- 25)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는 신라왕경의 구조와 왕궁의 규모를 체계적으로 밝히기 위한 조사의 일환으로, 2007년부터 2년간에 걸쳐 월지 북편지역에 대한 발굴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과정에서 상아제 주사위가 발견되었으며, 기존에 월지에서 출토된 14면체 주사위와 함께 통일신라시대 놀이문화를 살펴보는데 중요한 자료로 평가받고 있다.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2008년 12월 12일 보도자료 참고.
- 26) 무소와 코뿔소는 동의어로, 말목 코뿔소과에 속하고 인도와 아프리카에 서식한다. 코 위쪽 앞으로 뿔이 1개나 2개를 가지고 있으며, 犀角이라고 부른다. 한편 물소는 소목 洞角科에 해당되는데, 무소와 다소 혼동을 주기도 한다. 물소는 덩고 물이 풍부한 지역에 살며, 인도, 스리랑카, 중국 남부, 인도차이나 필리핀 등지에 있고 뿔은 양쪽으로 자란다.
- 27) 『三國史記』卷33, 雜誌2, 色服, “六頭品, 幞頭用總羅絁絹布, 表衣只用綿絁絁布, 內衣只用小文綾絁絹布, 袴只用絁絹綿絁布, 帶只用烏犀鑰鐵銅, 襪只用絁綿絁布, 靴禁烏麁皺文紫皮, 靴帶用烏犀鑰鐵銅”
- 28) 徐兢, 『宣和奉使高麗圖經』卷7, 冠服, “卿監之服 緋文羅袍 紅鞞犀帶 仍佩銀魚六寺卿貳 省部丞郎 國子儒官 祕書典職以上 悉服之.” ; 卷第11, 仗衛 1, “興威左右親衛軍 服紅文羅袍 以五采團花 點纈爲飾 金花大帽 黑犀束帶 王之左右二十餘人 出則執螭文繡花大扇曲蓋 扈從前後.”

로 보인다. 또한 서각은 여성의 의복에는 나타나지 않아, 남성의 품계와 지위를 상징하는 물품으로 파악된다.

여성의 복식에 등장하는 孔雀尾와 翡翠毛도 흥미로운 부분이다. 진골 여인의 裋에 罽와 繡는 금하고 ‘金銀絲孔雀尾翡翠毛’는 사용할 수 있다고 기록하였다.²⁹⁾ 裋는 요즘의 목도리나 솔과 같은 용도였으며, 중국 당의 복식에서 유래된 것이다. 신라는 삼국 통일 직전에 중국식으로 제도와 복식을 개편하였으며,³⁰⁾ 이후 文武王 4년(664)에 이르면 부인의 의복에도 변화가 생긴다.³¹⁾ ‘金銀絲孔雀尾翡翠毛’는 6두품과 5두품 여성의 帶를 꾸밀 때도 사용할 수 없는 장식으로 나타난다.³²⁾ 당시는 중국의 영향으로 치마를 위로 높게 올려 입었기 때문에 帶는 남성의 腰帶와 달리 가슴 정도에 위치했다.³³⁾ 이는 경주 용강동 고분에서 출토된 여성 인물도용의 복식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金銀絲, 孔雀尾, 翡翠毛는 함께 반복적으로 언급되어, 세 종류를 모두 묶어 장식 재료로 활용한 것으로 보인다. 금은의 延性を 활용하여 만든 실, 그리고 공작의 꼬리와 비취의 깃털을 가다듬어 실처럼 만든 후 수를 놓는 방식으로 제작되었을 것이다.³⁴⁾ 왕실 여인은 罽繡錦羅와 같은 고급 직물에 금은과 비취빛으로 수놓은 호화로운 복식을 향유했으며, 진골 계

29) 『三國史記』 卷33, 雜誌2, 色服, “眞骨女 … 裋禁罽及繡用金銀絲孔雀尾翡翠毛者”

30) 『三國史記』 卷5, 新羅本紀5, 眞德王, “二年 … 春秋又請改其章服, 以從中華制, 於是, 內出珍服, 賜春秋及其從者.” ; 『三國遺事』 卷1, 王曆1 紀異1, 太宗春秋公, “是王代始服中國衣冠牙笏, 乃法師慈藏請唐帝而來傳也.”

31) 『三國史記』 卷6, 新羅本紀6, 文武王上, “四年 … 下教婦人 亦服中朝衣裳”

32) 『三國史記』 卷33, 雜誌2, 色服, “六頭品女 … 帶禁以金銀絲孔雀尾翡翠毛爲組 … 五頭品女 … 帶禁以金銀絲孔雀尾翡翠毛爲組”

33) 전현실, 강순제, 앞의 논문, 143쪽.

34) 孔雀尾와 翡翠毛를 이용한 製絲 기술의 전통은 단절된 상황이다. 최근 모시와 삼베의 제사 방법을 차용하여 孔雀絲를 만들고 이를 활용한 직물을 재현한 바 있다.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전통의 씨줄, 현재의 날줄』, 2013, 94쪽.

층은 가장 바깥에 두르는 裵와 눈에 잘 띠는 帶를 만들 때 화려함을 강조하는 장식으로 사용하였다.

공작미와 비취모는 각각 공작과 비취조에서 얻을 수 있는 유기물 재료이다. 두 종류의 새는 모두 아름다운 꼬리와 깃털을 갖고 있어, 초록색과 금색을 표현할 수 있는 공예 재료로 주목받았다. 공작의 주요 서식지는 인도로, 말레이시아, 미얀마, 중국 남부 등지에서도 찾을 수 있다. 『日本書紀』推古 6년(598)에 신라가 공작 한 마리를 보냈다고 기록하였는데,³⁵⁾ 당시는 진평왕대로 삼국시대 이미 공작이 국내에 들어왔던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647년 眞德女王 때에도 공작 한 쌍을 선물하여, 산지와 직접 교류를 추정할 수 있다.³⁶⁾ 비취조는 물총새를 뜻하며, 예전에는 魚狗라고도 불렀다. 『本草綱目』에는 푸른색을 띠는 깃털을 여성의 머리 장식으로 쓰고 交州, 廣州, 南越 등에서 산다고 하였다.³⁷⁾ 비취조는 따뜻한 지역, 특히 캄보디아가 대표적인 서식지이다. 광물 보석과도 같은 빛과 광택을 지니고 있으면서, 수입품으로 희소했기 때문에 진귀한 물품으로 인식되었다.

Ⅲ. 外來品 선호와 장식기법의 발전

1. 보석의 산지와 교역

敎書에는 국내산 보다는 異國 물품을 선호하는 세태를 비판하고 있어,

35) 『日本書紀』卷22, 推古天皇, “六年 … 秋八月己亥朔 新羅貢孔雀一隻.”

36) 『日本書紀』卷25, 孝德天皇, “新羅 遣上臣大阿滄金春秋等 送博士小德高向黑麻呂 小山中中臣連押熊 來獻孔雀一隻.”

37) 李時珍, 『本草綱目』下, “魚狗 處處水涯有之 大如燕 喙尖而長 足紅而短 背毛翠色帶碧 翅毛黑 色揚青 可飾女人首物 亦翡翠之類”, “翡翠 時珍曰, 爾雅 謂之鷩 出交廣南越諸地.”

국제 교역을 통해 유입된 外來品이 신분과 지위를 넘어 크게 유행한 정황을 알려준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최고의 신분을 나타내거나 호화로운 사치품을 제작할 때 소용된 재료는 옥, 슬슬, 대모, 서각, 상아 등 대부분 보석류에 해당한다. 따라서 대표적인 보석의 산지를 추정하여, 국내에 유통될 수 있었던 교역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왕실의 상징인 옥, 특히 백옥은 水玉이라고도 부르는 최고의 가치를 지닌 물품이었다.³⁸⁾ 예부터 옥은 新疆 維吾爾自治區에 있는 和田이 대표적인 산지이다. 호탄은 티베트어로 ‘옥이 나는 곳’이라는 의미인 ‘于闐’로도 불릴 만큼 유명하다. 중국에서는 遼寧省 岫岩 珣玕琪, 江蘇省 茅山, 四川省 龍川과 珉山 등에서도 옥을 찾을 수 있었지만 색상과 광택이 좋은 호탄의 산물을 가장 선호했다. 호탄은 白玉河와 黑玉河가 동서로 나뉘어 흐르는데, 여름에 강물이 범람하면 깨진 원석이 흘러들었고 가을에 강이 메마르면 옥을 채집했다. 그것을 ‘撈玉’이라고 했으며, 기록에 따르면 국왕이 먼저 가져간 다음 백성이 채취할 수 있다고 전한다.³⁹⁾ 호탄의 옥 생산은 지금도 지속되고 있다. 현재도 최상으로 꼽는 것은 羊脂玉으로 마치 양의 기름처럼 우윳빛 도는 매끈한 옥인데, 기록에 언급된 백옥의 모습을 상상할 수 있다.

오랫동안 중국을 비롯한 여러 지역에 수출된 호탄의 옥은 軟玉이며, 국내 일부 지역에서도 얻을 수 있다. 강원도 춘천시 동면 월곡리에서 밝은 녹색을 띠는 연옥이 산출되고 경상북도에서도 현재 생산되고 있다. 국내 옥의 산지가 알려져 있지만, 금제 규정에 언급된 백옥은 왕실을 위해 특별

38) 중국에서는 흰색이면서 맑고 투명한 보석을 ‘水玉’으로 불렀다. 보통 白玉을 지칭하지만 때로는 백수정을 의미하기도 한다. 李昉編, 『太平御覽』 珍寶部7 水精, “山海經曰, 堂庭山多水玉, 注曰, 水玉今水精也.”

39) 『新五代史』 卷74, 四夷附錄第3, “東曰白玉河 西曰綠玉河 又西曰烏玉河 三河皆有玉而色異 每歲秋水涸 國王撈玉于河 然後國人得撈玉.”

하게 선별된 수입품일 가능성이 높다.

푸른색의 보석인 슬슬은 중국의 문헌에서 서역의 산물로 자주 확인된다. 터키석은 현재 이란, 인도, 티베트, 이집트, 미국, 영국 등에서 산출되지만 가장 유명한 지역은 이란이다. 원석의 강도와 비중이 높고 아름다운 색상을 가지고 있어, 고대 페르시아부터 터키석의 주요 산지였다. 이란에서는 하늘빛이 감도는 청색 터키석이 많고 인도와 티베트에서는 짙은 녹색을 띠는 터키석을 선호한다. 중국의 문헌에는 페르시아를 뜻하는 波斯國의 터키석이 자주 언급된다. 『北史』와 『隋書』에는 파사국의 토산품으로 열거하였고 唐代의 기록에도 나타난다.⁴⁰⁾

슬슬은 티베트에서도 즐겨 사용하였다. 唐代 杜佑는 『通典』에서 티베트 사람들은 남녀 모두 머리 장식에 슬슬을 사용한다고 하였다.⁴¹⁾ 또한 장식은 지위에 따라 5등급으로 나누는데, 슬슬이 첫 번째고 다음이 金, 金銀, 銀, 銅의 순서라고 보았다. 또한 明代 沈德符의 『萬曆野獲編』에서도 슬슬은 푸른색 구슬이며, 티베트에서 최상의 장식으로 쓰인다고 설명한다.⁴²⁾ 고대부터 티베트인이 슬슬을 좋아한 것을 알 수 있고 터키석의 주요 산출지라는 점과도 연결되어 주목된다. 고대 페르시아의 터키석이 국내에 유입되었을 가능성과 함께 인도와 티베트에서 생산된 원석의 수입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대모와 상아, 서각 등은 모두 동물에서 얻는 유기물 보석으로, 바다에

40) 『北史』 卷97, 列傳85, 西域 波斯國, “出金 銀 鍮石 珊瑚 琥珀 車渠 馬腦 多大 眞珠 頗梨 琉璃 水精 瑟瑟 金剛 火齊”; 『隋書』 卷83, 列傳48 波斯, “波斯國 … 土多良 眞珠 頗黎 獸魄 珊瑚, 琉璃 瑪瑙 水精 瑟瑟 呼洛羯 呂騰 火齊 金剛”; 『唐六典』 卷22, “赤麋皮 瑟瑟 赤圭 琥珀 白玉 碧玉 金剛 鈇 盆灌 鍮石 胡桐律 大鵬砂出波斯及涼州”

41) 杜佑, 『通典』 邊防六, 吐蕃, “其俗重漢繒而貴瑟瑟 男女用爲首飾 … 其官章飾有五等, 一謂瑟瑟 二謂金 三謂金飾銀上 四謂銀 五謂熟銅.”

42) 沈德符, 『萬曆野獲編』 卷30, 烏思藏, “其官章飾 最尙瑟瑟 瑟瑟者 綠珠也.”

인접해 있거나 따뜻한 지역에 서식하는 경우가 많다. 대모를 얻을 수 있는 바다거북은 열대나 아열대 지역에 있으며, 산출지는 중국의 문헌기록을 참고할 수 있다. 『新唐書』에는 安南에서 산출되는 토산품 대모를 진상한 내용이 전하고,⁴³⁾ 『唐會要』에는 元和 13년(818) 訶陵國에서 대모를 보냈다고 하였다.⁴⁴⁾ 安南은 오늘날 베트남이고 訶陵國은 인도네시아로 따뜻한 남쪽 바다가 대모의 주요 산지임을 확인해 준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중국을 통하거나 동남아시아와의 교역을 통해 대모를 들여왔을 것이다.

상아와 서각을 얻을 수 있는 코끼리와 코뿔소는 인도와 인도네시아의 수마트라, 베트남, 아프리카 등에 서식한다. 중국의 기록을 보면 상아와 서각은 로마와 같은 서쪽 지역에서도 들어오지만,⁴⁵⁾ 동남아시아에서 유입된 경우가 더욱 많았다. 北魏의 地理書인 『水經注』에는 베트남인 林邑에서 상아가 들어온다고 하였으며,⁴⁶⁾ 『唐六典』에도 安南에서 산출된다고 적었다.⁴⁷⁾ 실제로 인도차이나 반도에 있던 墮和羅(Dvāravātī)가 649년 당나라에 象牙를 선물하였고,⁴⁸⁾ 베트남 북부인 驩州에서도 토산품인 상아와 서각을 보냈다.⁴⁹⁾ 앞에서 언급한 『唐會要』의 818년 항목에는 대모와 함께 살아있는 코뿔소가 진상되는 경우도 있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중국을

43) 『新唐書』 卷43上, 志第33上, 地理7上, “安南中都護府 … 陸州玉山郡 … 土貢 … 玳瑁”

44) 『唐會要』 卷100, “訶陵國 … 元和 … 十三年十一月獻僧祇女二人及玳瑁瑤生犀等”

45) 杜佑, 『通典』 邊防9, 大秦, “大秦王安敦遣使自日南徼外獻 象牙 犀角 玳瑁 始乃一通焉 其所表貢 並無珍異 疑傳者隱之 至晉武帝太康中 其王遣使貢獻.”

46) 酈道元, 『水經注』 卷36, 溫水, “林邑記曰 … 白雉 象牙 重九譯而來.”

47) 『唐六典』 卷22, “其紫檀 欄木 檀香 象牙 翡翠毛 黃嬰毛 青蟲眞珠 紫礦 水銀出廣州及安南.”

48) 『舊唐書』 卷197, 列傳147, 南蠻 西南蠻, 墮和羅國, “貞觀 … 二十三年 又遣使獻 象牙 火珠 請賜好馬 詔許之.”

49) 『新唐書』 卷43上, 志33上 地理7, “驩州日南郡 下都督府 本南德州 武德八年曰德州 貞觀元年又更名 土貢 金 金薄 黃屑 象齒 犀角 沈香 班竹”

통해 일정량의 유기물 보석을 수입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고려시대의 기록이지만 1054년에 송에서 서각과 상아를 들여온 내용이 전한다.⁵⁰⁾ 중국 泉州에서 고려로 수출한 물품에도 玳瑁, 孔雀, 鸚鵡 등이 포함되어 있다.⁵¹⁾ 조선시대도 明과의 무역 품목에 犀角이 등장하는데, 모두 없어서는 안 될 물건이라고 설명하였다.⁵²⁾ 동남아시아와 직접적으로 교역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지만 중국이 중계하는 무역망을 활용하여, 국내에 다양한 異國의 산물이 유입된 것으로 파악된다.

2. 外來品の 가공과 장식기법

외래품의 선호와 유행 취미는 공예 장식의 발전에 원동력이 되었다. 수입된 여러 종류의 원석은 가공과 세공 기술을 거쳐 비로소 아름다운 공예품으로 완성되기 때문이다. 敎書에 언급된 내용 중에서 제작 기법에 관한 단서를 읽을 수 있는 예를 찾아 의미를 알아보겠다.

色服과 車騎 항목 중에 ‘梳禁瑟瑟鈿玳瑁’, ‘冠禁瑟瑟鈿’, ‘鞍橋禁寶鈿’ 등은 瑟瑟鈿으로 장식한 빗과 관, 그리고 寶鈿으로 꾸민 안장 등을 뜻한다. ‘鈿’은 고대 중국에서 금이나 보석의 장식물 또는 장식 공정의 의미로 사용되었다.⁵³⁾ 슬슬은 구체적이지만 寶鈿은 분명하지 않아, 여러 종류의 보석 장식을 포함하는 정도로 이해된다. 같은 명칭은 唐代 문헌에서 다수 찾아볼 수 있는데, 『舊唐書』에 기물을 장식하는 표현으로 ‘瑟瑟寶鈿’

50) 『高麗史』 卷7, 世家7, 文宗 甲午 8年(1054), “秋七月庚午宋商趙受等六十九人來獻犀角象牙.”

51) 李玉昆, 『泉州海外交通史略』, 廈門大學出版社, 1995(김문경, 『9세기 후반 신라인의 해상활동』, 해상왕장보고기념사업회, 2006, 63쪽 주) 50 재인용).

52) 『朝鮮王朝實錄』 76卷, 中宗 28年(1533), “明珀琥珀犀角帶弓角書冊白黃絲各色絲色則皆不可無之物質之若何.”

53) 김영재, 「瑟瑟·鈿考」 『복식』 31, 1997, 220~221쪽.

이 나타난다.⁵⁴⁾ 안사의 난으로 정국이 혼란한 상황에서 肅宗은 至德 2年(759년)에 珠玉, 寶鈿, 平脫, 金泥, 刺繡를 禁하게 하였으며,⁵⁵⁾ 代宗은 大歷 7년(772년)에 假花果 및 平脫, 寶鈿 등의 물품을 만들지 못하게 하는 勅을 내렸다.⁵⁶⁾ 금제 규정에도 언급된 것으로 보아, 당시 크게 유행한 장식기법인 것을 알 수 있다.



<도 5> 金銀平脫花文鏡, 통일신라, 지름 15.3cm, 국립중앙박물관
 <도 6> 螺鈿團花禽獸文鏡, 통일신라, 지름 18.6cm, 삼성미술관 리움

중국에서 ‘鈿’으로 장식된 기물이 유입된 것은 聖德王 32년(733)의 기록에서 살펴 볼 수 있다. 당에서 내린 품목 중에 ‘金銀鈿器物’이 포함되었고 ‘金銀寶鈿’ 기물은 눈부시고 듣는 자의 마음을 놀라게 한다고 설명하였다.⁵⁷⁾ 금은을 포함한 다양한 보석류를 장식한 기물이 유입되면서, 호화롭

54) 『舊唐書』 卷17上, 本紀17上, 文宗上, “先造供禁中床榻以金筐瑟瑟寶鈿者”

55) 『新唐書』 肅宗本紀, 至德二年 12月條, “禁珠玉寶鈿平脫金泥刺繡”

56) 『舊唐書』 代宗本紀, 大歷七年 6月條, “不得造假花果及手脫寶鈿等物”(手는 平자의 誤記).

57) 『三國史記』 卷8, 新羅本紀8, 聖德王 32年, “冬十二月, 遣王姪志廉, 朝唐謝恩, 初, 帝賜王白鸚鵡雄雌各一隻及紫羅繡袍金銀鈿器物瑞紋錦五色羅綵共三百餘段,

고 우수한 중국의 제작기술에 대한 이해를 높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金銀寶鈿’은 金銀鈿과 寶鈿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金銀鈿은 평탈을 의미하고 寶鈿은 보석류나 패각으로 장식한 것일 가능성이 있다.⁵⁸⁾ 통일신라 시대 금은으로 장식한 평탈거울이 국립중앙박물관에 전하며(도 5), 패각이나 터키석, 호박 등으로 장식한 나전거울도 삼성미술관에 소장되어 기법의 유사성을 비교해 볼 수 있다(도 6).

平脫은 木心이나 金屬으로 된 器物에 金銀片으로 만든 무늬를 장식하는 古代의 대표적인 공예기법이다.⁵⁹⁾ 금은을 두드려 얇은 薄板을 만들어 문양을 재단하여 器面에 접착시키고 그 위에 다시 칠을 하여 고정시킨 다음 곱게 다듬어서 칠한 표면의 金銀片 무늬가 드러나게 하는 과정을 거쳐 완성된다. 금은을 부착하여 장식한다는 점에서 金銀鈿과 혼용되었을 수 있는데, 실제 正倉院 소장품의 <金銀鈿莊大刀>로 불리는 여러 점의 기물에는 평탈 장식이 나타나며, 東大寺의 <金鈿莊大刀>에도 같은 기법으로 문양이 시문되었다(도 7). ‘平脫’이라는 용어는 古代 중국의 문헌에서 비롯되었고 우리나라에서는 기록으로 확인된 바가 없지만 『三國史記』 器用에 기재된 ‘平文’이라는 용어가 平脫을 지칭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⁶⁰⁾

733년 중국에서 金銀鈿器物이 들어온 이후, 景文王 9년(869)에는 신라에서 唐에 보낸 물품에 瑟瑟鈿金針筒이 나타난다.⁶¹⁾ ‘鈿’으로 꾸미는 제작 방식이 크게 발전하여 중국에 예물을 보낼 정도의 수준에 이르렀다는 것

王上表謝曰，伏惟陛下，執象開元，聖文神武，應千齡之昌運，致萬物之嘉祥，風雲所通，咸承至德，日月所照，共被深仁，臣地隔蓬壺，天慈洽遠，鄉睽華夏，睿渥覃幽，伏視瓊文，跪披玉匣，含九霄之雨露，帶五彩之鸞鸞，辯惠靈禽，素蒼兩妙，或稱長安之樂，或傳聖主之恩，羅錦彩章，金銀寶鈿，見之者爛目，聞之者驚心”

58) 김삼대자, 「文獻으로 본 나전칠기의 始原」 『考古歷史學志』 16, 2000, 501쪽.

59) 신숙, 「통일신라 평탈공예 연구」 『美術史學研究』 242·243, 2004, 29~61쪽.

60) 『三國史記』 卷33, 雜誌2, 器用, ‘四頭品至百姓, 禁金銀鍮石朱裏平文物’

61) 『三國史記』 卷11, 新羅本紀11, 景文王 9年, “遣王子蘇判金胤等入唐謝恩 … 瑟瑟鈿金針筒三十具金花銀針筒三十具.”

을 알 수 있다. 또한 신분을 나타내는 여성의 관이나 빗의 장식뿐만 아니라 針筒과 같은 일상 기물에도 사용된 것을 알려준다. 瑟瑟이라는 명칭을 중국 唐代 문헌에서 다수 찾을 수 있는데 비해, 瑟瑟鈿의 용례는 거의 보이지 않는다. 중국에서는 여러 종류의 보석 장식을 총칭하는 의미로 寶鈿을 즐겨 사용한 것으로 생각된다. 통일신라시대에는 금은, 패각, 터키석, 호박 등을 활용하여 공예품을 제작하였으며, 이를 金銀鈿, 瑟瑟鈿, 寶鈿, 螺鈿 등의 기법으로 인식하였다.



<도 7> 金鈿莊大刀, 일본 東大寺

진골 여성의 비녀 장식에 금한 ‘釵禁刻鏤及綴珠’의 부분도 주목된다.⁶²⁾ 비녀를 제작할 때, 刻鏤와 綴珠로 꾸미지 못하게 한 것이다. 6두품 여성의 항목에도 ‘釵禁純金以銀刻鏤及綴珠’로 규정되어, 刻鏤와 綴珠를 사용할 수 없었다. 刻鏤는 아로새긴다는 의미이며, ‘鏤’라고 표현된 장식 기물은 통일신라의 기록에 자주 나타난다. 『唐會要』에는 開元 12년(724) 신라가 보낸 물품에 ‘鏤鷹鈴’이 포함되었고,⁶³⁾ 景文王 9년(869)에 보낸 품

62) 『三國史記』 卷33, 雜誌2, 色服, “眞骨女 … 釵禁刻鏤及綴珠”

63) 『唐會要』 卷95, 新羅, “開元 … 十二年 興光遣使獻果下馬二匹 … 鏤鷹鈴”

목에도 金銀에 새김 장식한 것을 金鏤, 銀鏤라고 서술하였다.⁶⁴⁾ 또한 哀莊王 8년(807)년에는 樂工이 ‘金鏤帶’를 들렀다고 묘사하였다.⁶⁵⁾ 한편 『買新羅物解』에도 牙鏤梳와 牙鏤笄子가 등장한다.⁶⁶⁾ 이처럼 금은이나 상아와 같은 기물의 표면에 장식되는 기법을 ‘鏤’라고 쓴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牙鏤’는 正倉院 문서에 나타나는 ‘撥鏤’를 떠올리게 한다. ‘撥鏤’는 일본의 문헌기록에 주로 등장하는 용어로, 상아와 같은 유기물 보석의 표면을 붉은색이나 푸른색, 노란색 등으로 염색하고 그 위에 문양을 새기는 장식기법이다. 상아의 염색은 표면만 물들기 때문에, 바탕의 색상과 다르게 하고 선으로 긁어내어 원래의 색이 드러나게 하거나 선각한 부분을 채색하는 경우도 있다. 고대 이집트에서 초보적인 기법이 시작되고 唐代에 크게 유행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⁶⁷⁾ 중국에서는 기록만 전하고 관련된 유물이 출토된 예는 많지 않다. 문헌에는 唐代 中尙署의 관리가 매년 2월 2일에 ‘鏤牙尺’을 헌상했다는 내용이 있고,⁶⁸⁾ 발루기법으로 만든 尺은 正倉院 소장품으로 남아 있다(도 8).

현존 유물과 ‘撥鏤’라고 쓴 문헌기록이 대부분 正倉院에 전하고 있어, 기법의 명칭과 내용에 대해 주로 일본의 학계에서 관심이 높고 사라진 전통 기술의 복원도 주도하고 있다. 그러나 唐의 ‘鏤牙’나 통일신라의 ‘牙鏤’가 ‘撥鏤’의 원류일 것으로 생각된다. 일본에서 ‘撥ねる’는 잘라버린다는 의미로, 표면을 칼로 새길 때 재료의 일부가 떨어져 나가는 것을 설명했을

64) 『三國史記』 卷11, 新羅本紀11, 景文王 9年, “金鏤鷹尾筒五十雙金鏤鷄子尾筒五十雙銀鏤鷹尾筒五十雙銀鏤鷄尾筒五十雙”

65) 『三國史記』 卷32, 雜誌1 樂, “哀莊王八年, 奏樂始奏思內琴, 舞尺四人青衣, 琴尺一人赤衣, 歌尺五人彩衣, 繡扇並金鏤帶”

66) 『買新羅物解』, “合貳拾參種 … 牙鏤梳壹拾箇 牙鏤算子貳拾□ … 以前 可買新羅物并儲買等如前謹解 天平勝寶四年六月廿三日”

67) 奈良國立博物館, 『正倉院展』, 1998, 26~27쪽.

68) 『唐六典』 卷22, 少府軍器監, “中尙署 … 每年二月二日 進鏤牙尺及木畫紫檀尺”

지도 모른다. 장식기법이 일본으로 전파된 이후, 용어에 변화가 있었을 가능성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



<도 8> 紅牙撥鏤尺, 일본 正倉院



<도 9> 바둑돌, 撥鏤, 일본 正倉院

상아의 표면을 긁어내고 색을 입히는 장식기법은 삼성미술관에 소장된 사리병에서 선례를 찾아볼 수 있다.⁶⁹⁾ 사리병은 보물 643호 <금동미륵보살반가사유상>과 동반출토 되어, 삼국시대 유물로 추정된다. 상아로 만든 몸체에 어깨 부분은 선과 원문을 음각하고 채색하였다. 또한 잘 알려진 백제 의자왕 관련 유물에서도 발루기법을 확인할 수 있다(도 9).⁷⁰⁾ 의자왕

69) 신숙, 앞의 논문, 2016, 51~52쪽.

이 일본의 內大臣에게 내린 廚子の 納物 중에 바둑돌이 있었고 일부는 발루기법으로 제작되었다. 바둑돌은 흰색, 검은색, 붉은색, 남색 등 네 종류로 구성되며, 붉은색과 남색은 상아를 곱게 물들인 후, 표면에 꽃을 머금고 날아가는 새를 새겨 넣었다. 상아를 ‘鏤’로 장식한 것은 삼국시대부터 비롯되어 통일신라시대에 크게 유행하였다. 또한 異國의 재료를 자유롭게 가공할 수 있는 공예 기술을 습득한 이후에는 일본에도 영향을 주어, 당시의 문화적 역량을 가늠하게 한다.

刻鏤와 함께 언급된 綴珠는 옥으로 꾸민 것으로 해석하기도 하지만 보통 玉과 珠는 구별하여 쓰는 경우가 많다. 같은 문헌의 車騎 항목에도 ‘綴玉’이라고 구분하였고,⁷¹⁾ 『新唐書』에도 ‘禁珠玉’으로 표현되어, ‘綴珠’는 옥과 다른 보석으로 판단된다. 興德王代 금제 규정이 주로 외래품이면서 호화로운 장식 재료를 다룬 점을 감안하면 진주일 가능성이 높다. 진주는 고대부터 진귀한 보석으로 왕비의 관식을 꾸미는데 많이 사용되었으며,⁷²⁾ 教書에도 진주를 엮어 장식한 비녀는 진골도 사용할 수 없는 왕실 여인의 전유물로 기록하였다.

IV. 教書를 통해 본 신라 공예 문화의 다양성

신라시대 품계에 따른 공예 장식의 재료를 살펴보면, 왕실의 상징물인 玉과 瑟瑟을 비롯해 玳瑁, 烏犀, 象牙, 孔雀尾, 翡翠毛 등 다양하게 나타난다. 현재는 사용하지 않는 용어인 瑟瑟은 터키석으로 추정하였고 ‘綴珠’가

70) 신숙, 앞의 논문, 2016, 75~77쪽.

71) 『三國史記』 卷33, 雜誌2, 車騎, “眞骨 … 銜鐙禁金鍮石鍍金綴玉”

72) 신숙, 「백제 미륵사지 석탑 사리공양품의 보석과 교역」 『미술사연구』 31, 2016, 39~40쪽.

뜻하는 구슬에는 진주도 포함될 것으로 판단하였다. 대부분 국내에서는 산출되지 않아 희소성이 높고 빛나는 색상과 광택으로 차별화된 아름다움을 추구할 수 있는 재료로 구성되었다. 수정이나 마노와 같은 보석은 비교적 용이하게 국내에서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항목에 등장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되어, 실제로는 더욱 다채로운 소재를 활용했을 것이다.

白玉과 瑟瑟은 최고의 위상을 가진 보석으로 왕과 왕비의 복식이나 머리 장식으로 사용되었다. 서각은 남성의 지위와 권위를 상징하는 물품이었으며, 대모와 상아는 여성의 장신구를 꾸미는데 선호되었다. 특히 상아는 이른 시기부터 의례 물품에서 일상 생활기물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적용된 대중적인 보석이었다. 孔雀과 翡翠는 삼국시대부터 국내에 유입된 문헌 기록이 나타나지만 꼬리와 깃털이 장식 재료로 쓰이면서, 통일신라 시대에 특별한 위상을 지닌 공예품으로 유행하였다.

白玉은 당시 옥의 산지로 유명했던 호탄의 산물로 추정하였으며, 瑟瑟은 이란과 티벳에서 원석이 생산된 것을 알 수 있었다. 대모, 서각, 상아 등 유기물 보석은 대체로 동남아시아에서 들여온 품목으로 확인되었다. 보석은 당시 아시아 교역의 중심지였던 중국을 통해 유입되었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직접 교역의 가능성도 열려있다. 서아시아, 중앙아시아, 동남아시아 등 여러 지역과의 직접적인 物的, 人的 교류에 대한 연구가 상당부분 진행되고 있어, 통일신라시대 異國產 보석이 유통될 수 있는 여건은 충분했을 것이다.

고가의 재료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장식 기술의 발전이 필수적인데, 瑟瑟鈿, 寶鈿, 刻鏤, 綴珠, 綴玉, 平文 등은 공예 기법의 특징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기록이었다. ‘鈿’은 기물의 표면에 보석을 감장하거나 감입하는 장식이며, 이후 平文과 平脫, 螺鈿 기법의 유행과도 연결된다. 한편 ‘鏤’는 기존에 알려진 撥鏤와 비교하여 검토하였다. 문헌기록을 통해 ‘牙鏤’를 撥鏤의 원류로 해석하였으며, 正倉院에 전하는 상아제 유물

을 韓日 교류의 결과물로 재조명할 필요도 높아졌다. 綴玉과 綴珠는 옥이나 진주와 같은 보석을 엮어 화려함을 배가하는 공예 기법으로 파악하였다.

흥덕왕대의 금제규정은 분명 국가의 기강을 바로잡고 올바른 풍속과 예법을 찾고자 했던 일이다. 그렇지만 당시 실제적인 분위기를 파악할 수 있는 行間의 의미도 놓쳐서는 안 될 것이다. 진골이나 6두품 여인들이 원래 사용할 수 없었던 瑟瑟鈿 공예품을 선호하지 않았다면, 그리고 5두품 이하의 신분이 烏犀帶를 지니고 싶어 하지 않았다면, 禁命을 내려 강력하게 규제할 필요는 없었을 것이다. 敎書는 골품에 벗어나는 사치품의 사용이나 호화로운 물품의 유행을 반증해 주며, 신라 하대 상류 문화에 대한 열망과 확대된 소비 현황을 알려준다. 신분제로 유지되는 사회에서 규범을 벗어난 풍속이 긍정적인 현상은 아니겠지만 신라 문화의 수준과 다양성에 변화를 가져온 것은 분명해 보인다. 기록에 나타나는 각종 외래품은 신라의 적극적 대외교류를 확인해 주며, 고가의 재료를 더욱 빛나게 했던 우수한 장식 기술은 발전된 공예 문화를 밝혀준다.

【참고 문헌】

1. 1차 자료

『舊唐書』 『高麗史』 『三國史記』 『唐會要』 『通典』 『北史』 『宣和奉使高麗圖經』
『新唐書』 『新五代史』 『日本書紀』 『三國遺事』 『朝鮮王朝實錄』 『禮記』
沈德符, 『萬曆野獲編』
樂史, 『太平寰宇記』
酈道元, 『水經注』
李時珍, 『本草綱目』

2. 저서

김문경, 『9세기 후반 신라인의 해상활동』, 해상왕장보고기념사업회, 2006.
박남수, 『한국 고대의 동아시아 교역사』, 주류성, 2011.
손보기 엮음, 『장보고와 청해진』, 혜안, 1997.
정구복, 노중국, 신동하, 김태식, 『역주 삼국사기』, 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
2011.
최재석, 『正倉院所장품과 統一新羅』, 一志社, 1996.
최호 譯, 『新譯 三國史記』 2, 홍신문화사, 1999.

奈良國立博物館, 『正倉院』, 毎年特別展示圖錄.

3. 논문

김영재, 「瑟瑟·鈿考」 『복식』 31, 1997, pp. 215-222.
김진구, 「三國史記의 服範研究 VI - 色服의 服範 附屬品을 中心으로」 『服飾文化
研究』 7-3, 1999.
_____, 「三國史記의 服飾研究 II - 色服의 衣服을 中心으로」 『服飾文化研究』
6-2, 1998.
_____, 「三國史記의 服飾研究 III」 『服飾文化研究』 6-2, 1998.
_____, 「三國史記의 服飾研究 IV - 色服의 婦人 服色을 中心으로」 『服飾文化研
究』 6-2, 1998.

- _____, 「三國史記의 服飾研究 V - 樂工服을 中心으로」 『服飾文化研究』 7-2, 1999.
- _____, 「三國史記의 服飾用語 研究I」 『服飾文化研究』 5-1, 1997.
- 김창겸, 「신라시대 金庾信의 興武大王 追封과 ‘新金氏」 『신라사학보』 18, 2010.
- 김창석, 「왕경인의 소비생활과 교역」 『신라문화제학술발표논문집』 28, 2007.
- 박남수, 「신라의 衣生活과 織物 생산」 『한국고대사연구』 64, 2011.
- 김삼대자, 「文獻으로 본 나전칠기의 始原」 『考古歷史學志』 16, 2000, pp. 497-509.
- 신 숙, 「백제 미륵사지 석탑 사리공양품의 보석과 교역」 『미술사연구』 31, 2016.
- _____, 「통일신라 평탈공예 연구」 『美術史學研究』 242·243, 2004.
- _____, 「한국 고대 보석장식 공예품과 국제교류」 홍익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16.
- _____, 「한국 미술에 보이는 보석재료와 장식」 『금은보화』, 삼성미술관 리움, 2013.
- 윤경진, 「신라 興德王代체제 정비와 金庾信 追封」 『史林』 52, 2015.
- 이한상, 「신라 복식의 변천과 그 배경」 『신라문화』 43, 2014.
- 전현실, 강순제, 「흥덕왕 복식제도 원전 고찰 및 분석」 『복식』 63-5, 2013.
- 전혜숙, 「신라통일기 정치적 상황과 복식연구-흥덕왕 복식금제에 나타난 복식실태를 중심으로」 『복식문화연구』 6-2, 1998.
- 조범환, 「金庾信의 가계와 후손들의 활동」 『신라사학보』 11, 2007.
- _____, 「新羅 下代 憲德王의 副君 설치와 그 정치적 의미」 『진단학보』 110, 2010.
- 채미하, 「신라 흥덕왕대의 정치와 儀禮」 『신라문화』 42, 2013.
- 皆川完一, 「買新羅物解拾遺」 『正倉院文書研究』 2, 吉川弘文館, 1994.
- 東野治之, 「鳥毛立女屏風下貼文書の研究-買新羅物解の基礎的考察」 『史林』 57-6, 1974.
- 西川明彦, 「木畫紫檀碁局と金銀龜甲碁局龕」 『正倉院紀要』 35, 2013.
- _____, 「赤漆文櫛木御廚子と<赤漆櫛木廚子>」 『正倉院紀要』 34, 2012.
- 野尻忠, 「魚骨笏の來歷」 『鹿園雜集』 9, 奈良國立博物館, 2007.

Abstract

Decorations on Craft Works and International Trade Revealed in King Heungdeok's Decree of Silla

Shin, Suk

The decree promulgated by King Heungdeok (興德王, r. 826 - 836) of Silla in 834, as recorded in *Samguk sagi* (三國史記), documents prohibition regulations on social class and strata, providing valuable information for understanding Silla society. *Samguk sagi*, in which recounts items that could be used to decorate garments, carts, objects, and houses according to *golpum* (骨品, bone - rank), shows favored materials and techniques for making and embellishing craft works during the Silla Kingdom.

Such record indicates various craft materials, ranging from jade (玉) and *seulseul* (瑟瑟), both of which were symbols of the royal family, to others, such as striped-tortoise shells (玳瑁), rhinoceros horn (烏犀), ivory (象牙), green peafowl tails (孔雀尾), and kingfisher feathers (翡翠毛). Most of these materials were imported goods as they were mentioned in the context of restricting the flood of luxuries and a preference for exotic goods as well. White jade was presumed to be the product of Khotan, a famous site for high-quality jade, while *seulseul*, also known as turquoise, was obtained from Iran and Tibet. Organic precious materials, including striped-tortoise shells, rhinoceros horn, and ivory, turned out to be mostly imported from

Southeast Asia, evidencing Silla's active international trade.

The decree also include technical terms - for example, turquoise inlay (瑟瑟鈿), gemstone inlay (寶鈿), engraving (刻鏤), plaiting beads (綴珠), plaiting jades (綴玉), and embedding shapes cut from gold, silver, or tin sheets (平文), which suggest characteristics of decorating methods. The first two related to inlay (鈿) refer to a decoration technique of inlaying gems on the surfaces of objects, and are related to the wide use of pyeongmun (平文), pyeongtal (平脫), and najeon (螺鈿) practices. In the case of engraving (鏤), I examined the term by comparing it with ballu (撥鏤), which is better known as bachiru. Bachiru appears to have originated from another term, aru (牙鏤), a carving technique applied on the surface of ivory, and the ivory artifact housed in Shōsōin (正倉院) can be inferred to be derived from exchanges between Korea and Japan. Plaiting beads and plaiting jades, or cheolju (綴珠) and cheorok (綴玉) in Korean respectively, can be understood as techniques to add splendor by stringing or plaiting gems, such as pearl or jade.

The prohibition laws reflect the frequent use of luxury items that did not match the social status and the popularity of extravagant goods. In other words, the desire to absorb upper class culture was so deep that strong control regulations were necessary. Although customs not abiding by social norms in the Silla society with its rigid hierarchy did not imply a positive phenomenon, they led to several changes in the cultural level and cultural diversity of Silla. All sorts of foreign products had proved Silla's active foreign trades with other countries. Moreover, outstanding decoration techniques that made such extravagant materials shine even more had validated the advanced craft culture of Silla.

Key Words : Silla, King Heungdeok, Samguk Sagi, jade, turquoise, ivory,
bachiru,

논문 투고일 : 2017. 02. 27

심사 완료일 : 2017. 03. 24

게재 확정일 : 2017. 04. 03